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지난 주일(10월 31일)에 모인 공동체전체모임에서 정관 6차 개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에 뜻있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지난 주일 총회 결정에 따라 역할공동체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구성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구성위원회에서 역할공동체 신청 안내서를 배부하였습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에, 희망부서를 기록하여 11월 13일(토)까지 방장,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서면이나 메신저 또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43 호

2021년 11월 0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공동체 신학과 신앙고백이 삶이 되도록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정리한 세례의 믿음 고백 형식이 지금까지 전해져오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다질 수 있게 해줍니다.

니케아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잘 알려진 신앙고백서들부터 생소한 신조들까지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꾸준히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서를 작성하고 한 목소리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다지고 지켜나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여 다른 시간이 아닌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는 사랑방공동체만의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고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관에 정리 되어 있는 공동체 신학과 신앙고백을 다시 한 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신학과 신앙고백

1) 사랑방공동체는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 살았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며, 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기본적으로 고백합니다. 사랑방공동체는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공동체 신학을 정리하고 고백합니다.

2) 공동체 신학은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①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이다.

②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③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증거된다. 즉,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④ 교회의 본래적인 삶은 '코이노니아'(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선교와 섬김)

이 성령 안에서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이다.

⑤ 공동체적인 삶의 대표적인 모습(라이프스타일)은 '디아코니아'(섬김)이다.

3) 사랑방공동체는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며, <요14-17장>

②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구원사의 도구이고, <엡1:9-10>

③ 교회는 개인과 민족 그리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즉 답입니다. <마16:18-19, 행2:37-41> 그러므로 "공동체"는 교회론을 바탕으로 하는 참 제자의 삶의 자세를 의미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신앙고백을 입으로 말하는 것에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람들 앞에서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고백한다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뤄야 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섬김"의 자세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해 위와 같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댓가 없이 섬기는 섬김의 손길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동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허공을 향해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진정 기독교 역사 안에 울림을 주는 사랑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 말씀

“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

<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29편

제목 : 의로운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다.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99 370 342 312

1. 내용관찰(What)

- 1) 1-4 의로운 주님께서 박해받는 자들을 구원 해 주신다.
- 2) 5-8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라진다.

2. 내용의 의미(Why)

- 1) 박해를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 2) 악인들의 모든 노력은 흔적만 남고 사라져 버렸다.

3. 의미의 적용(How)

- 1)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자.
- 2) 주님을 의지하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면, 그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회를 갱신하고, 죄인을 회심시키며, 악을 막고, 이 세상에 선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이 새롭게 드러나기 원하는 모든 요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에서 나올 수 있다.

주님의 기도에서 총체적인 간구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답할 수 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간청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가르쳐주셨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시작하소서. 나를 충실히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골 4:11)가운데 나의 자리를 보여주소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덧붙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실하게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또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구주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추구하는가?

이런 도전에 직면한 적이 있는가? 각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자.

제임스 패커. [기독교 기본진리]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편 136 : 1-3	인도자
* 예배의 찬송	28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87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출애굽기 3 : 1-12, 4 : 18-20	설교자
성가대 찬양	311	사랑방
설 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20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455(3)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현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감사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감사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10>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도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충성을 다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의 이야기에 몇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사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들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들의 응답이 연속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목적은 일보다는 은혜를 주시는 것에 더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모세의 경우,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산하고, 핑계하고, 따지느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외의 사람이 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졸업여행을 다녀온 돌고래반과 그 사이 잘 지낸 코끼리반이 오랫동안 만나서 일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화요일에는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 이해경 & 공병 선생님 작품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공병 선생님은 아크릴과 목재 그리고 돌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가람이 고모이신 이해경 선생님은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도자기 조각들로 문양을 이룬 아름다운 작품을 전시해 주셨는데 꾸러기들이 한 작품 한 작품을 흥미있게 그리고 상상력을 펼치며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명산아트홀로 갔는데 아트홀에도 SNS 활동 드로잉 작가전이 열리고 있어서 다양한 드로잉 작품들을 관람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맛있는 도시락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나무목걸이 만들기 작업도 한 후 아트홀 근처 연못, 정자,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 놀았습니다.

곱게 물든 나뭇잎이 떨어진 길을 걷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금빛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는 호사를 누린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온라인수업과 도보여행을 지나서 약 2주 만에 한 주를 꼬박 보통(?) 일정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3학년 은우가 인도하고, 은율이가 대표 기도를 맡고 권재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었던 예배를 시작으로, 그 간의 독서 활동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읽은 책을 추천하는 글'을 썼던 주제탐험 시간, 그리고 미술, 풍물, 음악과 악기 수업, 테마 수업과 연극 수업 등등 강사 선생님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자신의 기량들을 다시 챙겼던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요리 선생님들께서 사랑과 정성과 솜씨를 듬뿍 담아 해주시는 밥을 먹는

점심시간은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늘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습니다.

자유 시간에는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술래잡기도 하느라 시간이 늘 빨리 갑니다. 그리고나서 오후 두 시간도 잘 보낸 후 달는 모임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준비물도 챙기고, 과제도 밀리지 않게 챙기려고 노력했겠지요.

다양한 나뭇잎들이 각자의 색깔로 타들어가고, 가을바람과 햇살은 적당하게 선선하고 또 따사로웠습니다. 낙엽 카펫이 유난히 폭신했던 지난주는 어린이들도 잘 머물어간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유증이 걱정되긴 하지만, 워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 시기에 필요한 일이니 잘 견디길 바랄 뿐입니다.

멋쟁이 풋살 리그가 종료되었습니다. 셋별팀(주장:홍새별)이 3승 2패로 최종 우승하였습니다. 득점왕도 같은 팀의 이흥인(9골), 최재원(4골) 멋쟁이가 당선되었습니다. 다들 열정적으로 참여했기에, 실력과 팀워크가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공동심화학습에서는 통일에 대한 멋쟁이들의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사례와 더불어 한국의 통일에 대한 여러 관점과 손익 등을 공부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무리 시간까지 갔을 때, 멋쟁이들의 배움이 어디까지 높아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연례행사인 김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김치를 맛있게 담그고, 보람과 추억을 모두 챙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목요일에는 3, 4학년 특별외출과 함께 모든 멋쟁이가 연극 관람을 하러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나갑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으로 기억에 남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부르심 앞에 서있는 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에 2016년도에 입학하여, 2019년 2학기에 휴학을 하고 올해 2학기에 복학해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스무 살부터 스물다섯까지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스물 대학교를 싫어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지원한 학교였고, 하필 장신대만 합격해 당시에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억지로 입학했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기쁨과 신입생의 풋풋함으로 늘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동기들이 아주 알미웠습니다. 파주에서 서울 광장동으로 왕복 4시간 통학을 하며, 자퇴와 반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3월 중순 '부르심 앞에서 있는 나'라는 주제로 첫 사경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장신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물하나, f학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교육과 공동체에 개인적으로 상처 받고 실망하는 일이 생겨 교내 기숙사에 살았지만, 수업을 포함한 학교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방에 친하지도 않던 한 친구가 매일 빵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손을 내밀어 주던 그 친구는 어느 날부터 작은 예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작은 예수의 사랑에 스며들어 회복하였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스물둘,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신대로 부르신 이유, 청소년 시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타인에 시선에 맞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단단한 울타리로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물셋,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원망스럽던 부모님도, 알뜰하던 동기들도, 유명한 교회보다도 작은 학교 캠퍼스도.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나'까지 모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스물넷,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누렸습니다.

스물다섯, 오늘도 사랑방공동체와 제가 사랑하는 장신공동체를 오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성아 교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마가복음 7장 17~19절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를 위한 기도>

작년 11월부터 내전에 들어간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 수천 명이 사망하고 2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점차 격화되어 가는 갈등상황과 폭력사태가 멈출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헤세드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새 식구들이 잘 정착하시고, 거주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2) 사역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3) 출판 된 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입원 중에 있는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2) 정관개정 이후 준비 절차를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주는 날씨가 예년 기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낮 시간이 무척 짧아져서 오후 6시면 어둑어둑 어둠이 무림리를 덮습니다. 공동체의 느티나무들은 낙엽을 우수수 떨어뜨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토요일에는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지킴이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하는 일이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개척자들 송강호 박사님과 류복희 사모님이 사랑방공동체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개척자들은 전 세계 분쟁지역 최전선에서 평화활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평화활동가로서 제주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던 중 구금당하셨다가 얼마 전에 가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야위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좁고 어려운 길을 걷는 공동체로서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참으로 서로의 길을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정재훈 목사 >